

“앗! 주택대출 금리가 내렸다”

금융채 하락 CD 앞질러 고정금리 1.16%P ↓

‘금리 역전’ 활용 대출 전환 수요자 늘어날 듯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단기간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3개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밀도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채 금리의 하락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웃돈 데 따른 것으로 대출자들의 대출금리 전환 문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변주 초 고정금리형 주택대출금리(3년 고정 기준)는 6.37~7.97%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60%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14일에 비해서는 2주새 무려 1.16%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비해 3개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는 28일 현재 6.45~8.05%로 2주전에 비해 0.10%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의 최저, 최고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밀도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도 14일에 비해 각각 1.16%와 1.12% 하락한 6.78~8.28%와 6.71~8.11%로 최저금리가 2주간 0.10%포인트 하락에 그친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밀도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3년 고정		3개월 변동	
		1월14일	1월28일	1월14일	1월28일
국민	최저	7.53	6.37	6.55	6.45
	최고	9.13	7.97	8.15	8.05
우리	최저	7.94	6.78	6.79	6.69
	최고	9.44	8.28	8.29	8.19
신한	최저	7.83	6.71	6.89	6.79
	최고	9.23	8.11	8.29	8.19
하나	최저	8.50	7.47	7.19	7.06
	최고	9.20	8.17	7.89	7.76
외환	최저	7.63	7.30	7.10	6.97
	최고	8.13	7.80	8.14	8.01
기업	최저	7.54	7.10	6.91	6.84
	최고	8.44	8.00	8.26	8.21
농협	최저	7.37	6.29	6.57	6.58
	최고	8.57	7.49	8.29	8.18

농협도 고정금리가 2주전에 비해 1.08%포인트 떨어진 6.29~7.49%로 6.58~8.18%인 변동금리를 큰 폭으로 밀도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최고금리 기준으로 고정금리가 7.80%와 8.00%로 각각 2주간 0.34%포인트와 0.

44%포인트 떨어지면서 8.01%와 8.21%인 변동금리와 역전됐다.

주택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밀도 것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 금리의 하락폭이 변동금리의 기준인 CD금리의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91일물 CD금리는 25일 현재 5.76%로 이달 10일 이후 0.13%포인트 하락했지만 3년만기 AAA 금 은행채 금리는 8일 6.99%를 기록한 이후 24일까지 무려 1.40%포인트나 급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금리 급등세를 경험한 터여서 최근 금리 역전을 활용해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잔금의 1%가 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EO, 사업영향 트렌드 1위 ‘성장정책’ 꼽아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트렌드로 새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영자 대상 사이트 세리(SERID)CEO(http://www.sericeo.org)를 통해 21~25일 CEO 372명을 대상으로 올해 우리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2%가 ‘새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영자들은 이어 올해 영향을 줄 트렌드 2위로는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20.8%), 3위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정책(13.1%)을 꼽았다. /연합뉴스

“코스피 1500선도 붕괴 가능성 있다”

연기금 전망 ... 올 매수 실탄 23조 확보

국내 큰 손인 연기금들이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해외발 약제로 고전하면서, 코스피주 1,500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등 3대 연기금과 우체국보험직립금(옛 우체국보험직립금)은 주식시장이 올 상반기까지 어려운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부터 반등 국면으로 전환할 것 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증시가 최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확 인되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기금 주식 매수 실탄 23조원 =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 은 올해 신규(직·간접 포함)로 최대 9조5천억~22조원의 주 식 매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주식보유 비중을 작년 15%에 서 올해 17%까지 상향조정했으나 운용과정에서 22%까지 높 일 수 있도록 했다.

사학연금들은 올해 직·간접 주식투자액은 최대 1조4천억원까 지 가능하며 현재 투자금 1조원 정도를 제외하고 추가로 4 천억원어치를 주식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도 직·간접 주식투자액이 작년 말 8천600억원에 서 올해는 1조2천억원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만큼 올해 신규 로 3천억~4천억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우체국보험직립금은 현재 보험직립금(20조원의) 6% 가량 을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연기금, 상반기 증시 더 어려워져 ~ 1,500선 붕괴 가능성 = 연기금들은 그러나 국내 증시가 올 상반기 중에 기업 실적 부진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절정에 달해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 히 연기금은 미국의 소비 둔화가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크며 코스피지수는 1,500선도 하회할 가능성도 있 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정부 ‘경기부양’ 검토

조기 감세·규제 완화 등 ... 금리 인하는 고심중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 해 한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게 일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 라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고 기초체력 (펀드멘탈)을 강화하는 조처들이 취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감세를 서두르 고 규제를 신속히 완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내리거 나 인상기조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감세에 나서나 = 경기불안 가 능성에 대해 정부가 꺼내둘 수 있는 가 장 확실한 카드는 법인세 인하 등 세 제지원책이 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위해 감세를 비 롯한 대응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 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방안도 빠르게 진행

될 전망이다. <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총동원 = 정부는 규제완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 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는 6%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내외 경 제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성장률을 올 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 어다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등 미시 정책도 그 방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선거공약과 여 러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규 제완화의 의지를 밝혔었다.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져 = 한은은 그동안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콜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22일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고 영국과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 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연 조미료 맛보세요

상공과 생각사로 분한 대상(주) 청정원 직원들과 아이들이 27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재료 조미료인 ‘맛선생’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임대주택 최고 153만 가구 필요”

국토연구원 발표 ... 향후 추가공급 계획 세워야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가 최소 89만가구에서 많게는 153만가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2년까지 건설예정인 물 량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후 추가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27일 국토연구원의 강미나 연구위 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수 요추진 연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인구는 89만5천~153만3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금과 같은 조건으 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앞으 로 최소 89만5천가구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위원은 무주택가중층 가구 소득 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53 만9천원)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구, 그 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있는 경우를 수요로 추정했다.

입주자는 국토연구원이 2004년 수행한 국민임대주택 의식조사 결과 와 200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조사 사 물결과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국민임대주택을 지급처 럼 인근 시세의 70%선에서 공급할 경우 최소 89만5천가구, 최대 153만3 천가구의 유효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1% (46만7천~80만가구), 지방이 49% (42만8천~73만3천가구)로 나타났

다. 또 공급가격을 낮춰 인근시세의 60%로 할 경우에는 96만4천~165만 1천가구, 인근시세의 50%로 할 경우 에는 102만8천~175만7천가구로 각 각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 구로 넓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근시 세의 70%로 공급하면 148만~221만 3천가구, 60%로 공급하면 155만1 천~231만7천가구, 50%로 공급하면 162만1천~241만6천가구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 위원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 구 공급계획중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불량은 61만가구”라면서 “유효 수요가 건설예정 물량을 훨씬 넘고 있어 수요부족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2월 임시국회 분수령

비준 안될 땐 양국 선거 변수로 위기 맞을 수도

지난해 4월 무역협정 속에 타결된 한 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부 터 다음달 26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 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이 통과되지않으면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의 변수로 인해 한-미 FTA 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월 비준이 美안락 기회=27일 정 부 등에 따르면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측이 미국보다 먼저 2월 임시국회 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 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 지명 정당 대회가 이뤄지는 8월 이후부 터 연말까지는 FTA 비준 동의안을 물리 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이전 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늦어도 3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 난기류 = 2월 통과 불투명 =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전 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주문대 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인 대통 합민주당의 경우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2월 넘기면 상황 심각=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화가 2월에 이뤄 지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선 우리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 이 후 곧바로 총선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총선까지 한-미 FTA는 수면 아래로 잠 복하게 되고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 주 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또복권 (제26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5 18 20 36 42 43	3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961,399,94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4,295,453	22
3 5개 숫자 일치	1,611,933	1,014
4 4개 숫자 일치	64,715	50,514
5 3개 숫자 일치	5,000	866,762

팝콘복권 (제9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972211
2	1억	3조 105398
3	1천만	4조 776952
4	1백만	각조 82793
5	50만	각조 1384
		각조 22
6	2천	각조 87
		각조 82
		각조 0
7	1천	각조 8
		각조 9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남부대학교	[종합행정실/기숙사 관리직원]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8	062-970-0024
느린하늘	홈페이지제작, 초급웹디자인 구함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8	062-574-1193
정산생명과학	[백옥성]방문판매 영업관리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01/30	019-370-0131
하이이옥스	단순사무직, 경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30	061-336-0711
미너웃장	의류쇼핑몰 웹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30	062-654-7509
메드푸드시스템	[외식부] 영행사 / 푸드코디네이터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571-6000
서울검사	[광주공과대학]장규직 비파괴검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31	062-369-0790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융합연구소]분부장/행정지원팀장/연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970-3088
디지털인이지	그래픽디자인 및 편집디자인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654-3003
아이티블루	경력회계 경력자/영업지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234-1439
한림산업	건설업종 토목환경 기술설계, 영업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31	062-944-9123
램프(lamps)	Web 프로그래머 구함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350-0011
현대미시	관계총동요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01	062-225-1050
에너그린광주지점	KS관리, 표준화업무QC, QA업무 담당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5	062-943-8802

<광주접코리아 512-6210 제공>

아반떼 최다 생산...쏘나타 최다 판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작년 한해 생산한 자동차 대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였다.

2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모델별 생산현황에 따 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총 28만933대 의 아반떼를 생산했다. 하루 평균 약 769대를 생산한 셈이다. 아반떼는 국내에서 11만535대가 팔렸으며 16만9천861대가 수출됐다. 아반떼에 이어 많이 만들 어진 차로는 GM대우의 라세티, 현대차의 투싼, GM 대우의 마티즈, 쉐보레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1만9천133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쏘나타의 국내 생산대수는 16만7천3대였다.